

신년사

2022. 1. 1.



헌법재판소장 유남석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2022년 임인년(壬寅年)을 맞아, 헌법재판소 구성원
모두와 함께 국민 여러분께 새해 인사를 드립니다.

새해에도 국민 여러분의 가정에 기쁨과 행복이 가득
하고 소망하시는 모든 일들이 이루어지며, 우리 사회가
더욱 정의롭고 평화롭게 번영하기를 기원합니다.

코로나19의 대유행에 따라 많은 활동에 제약이 이어
지고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방역에 참여하고 여러
희생을 감수하면서, 우리 모두를 생각하는 성숙한 시민
의식을 보여주신 국민 여러분께 깊은 존경과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공동체 전체로 보면, 정치와 경제는 물론 문화의 다양한 영역에서도 대한민국의 국제적 위상은 이미 매우 높습니다.

우리는 열 손가락 안에 드는 경제 강국을 일궈냈습니다. 우리 문화에 인류 모두가 감탄한다는 소식이 일일이 열거하지 못할 정도로 연이어 들려옵니다. ‘오직 한 없이 가지고 싶은 것은 높은 문화의 힘이다.’ 라는 백범 김구 선생님의 염원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제 대한민국의 이 모든 성취를 바탕으로, 모든 국민의 삶을 윤택하게 하는 길을 찾는 데에 지혜를 모을 때입니다.

사람을 귀하게 여기는 마음과, 옆에 있는 동료 시민에 대한 따뜻한 관심과 연대를 통하여 함께 어려운 시기

를 극복한다면, 우리 사회의 구성원 각자가 능력을 최고도로 발휘하고 안전하고 자유롭고 행복한 인간다운 삶을 누릴 수 있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이 모든 것은 제헌 헌법 이래 지금까지 헌법의 전문과 본문에서 천명하고 있는 가치와 정신들과 다르지 않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새해에도 헌법 정신을 구현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주어진 역할과 책무에 계속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새해에 우리나라의 국운이 더욱 융성하는 가운데 국민 여러분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다시 한 번 기원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2022. 1. 1.

헌법재판소장 유 남 석